

“민화속 호랑이를 만나보세요”

7월14일까지 민화전 개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권은오)은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자연과 어울리는 우리 민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민화 작품을 통해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가 될, 이번 전시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는 전

통 민화 작품은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민화를 통해 소박하게 민족의 미감을 표현했듯이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실용성, 공예성, 상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민화는 민족의 고유한 신앙과 생활풍속 및 민족의 미감을 보여주는 소박한 그림이다. 민중의 즐거움, 슬픔, 삶, 죽음, 기쁨, 사랑, 미움, 자연의 아름다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자연과 어울리는 우리 민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가지적으로 조형된 그림으로 형식이 엄매이지 않고 순수하고 자유로우며 서민들의 미의식과 정서를 반영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을 등장하는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를 짚어 보면서 관람하는 것도 전시를 재미있게 관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43점의 민화 작품이 선보인다. 전통적으로 민화의 소재가 되어온 호랑이, 학, 원앙, 연꽃, 모란, 소나무 등을 담

고 있는 작품과 책거리, 풍속도 등이 전시된다.

그리고 실용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화가 생활 속에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전시는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文學기행

문학과 거리 좁힐 수 있는 계기

6월10일.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었다. 처음 떠나는 문학기행. '정계천 한번 구경가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한 것인데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린다.

차창 밖으로 비쳐지는 정계천 물줄기를 따라 사람구경, 물 구경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시선을 빼앗겼다.

날부터 산정호수를 시작으로 운천 시내 외곽을 따라 흐르는 부소천이라는 개울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감상을 시로 표현해 봤다는 설명과 함께 시낭송을 했다. 모두들 환호로 반겨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다.

능내리 다산 정약용 선생 기념관에 도착하여 점심식사에서 지도감사 안익수 시인의 강연이 이어졌다.

"걸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박정근, 공명수 교수님과의 짧은 조우, 김순진 수필가의 합류로 인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미사리 카페촌과 조정경지사의 진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로 느껴질 무렵 이원용 문예대학추진위원장님의 한 말씀. '원래 좋은 장소에서 시낭송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차가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시낭송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나의 시 '부소천'과 김선진 씨의 '꽃다지꽃' 두 편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내 시가 채택되었다는 뿌듯함마저 들었다.

돌아오는 길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된 마음으로 터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 문학기행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문학과 거리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인용 님은 환갑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6월은 호국의 달이라며 한 차례 호국에 관한 운편을 곁들여 시낭송을 하시는 목청이 찌릿찌릿 울렸다.

이어서 '운천에서 온 3기 문예대학 수강생 김미경' '처음 써 본 시를 급히 제출하느라 수정을 못해 나중에 고친대로 낭송을 할 테니 참고해서 들어 달라. 제 고향 운천에는 옛

날부터 산정호수를 시작으로 운천 시내 외곽을 따라 흐르는 부소천이라는 개울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감상을 시로 표현해 봤다는 설명과 함께 시낭송을 했다. 모두들 환호로 반겨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다.

능내리 다산 정약용 선생 기념관에 도착하여 점심식사에서 지도감사 안익수 시인의 강연이 이어졌다.

나의 시 '부소천'과 김선진 씨의 '꽃다지꽃' 두 편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내 시가 채택되었다는 뿌듯함마저 들었다.

돌아오는 길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된 마음으로 터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 문학기행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문학과 거리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인용 님은 환갑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6월은 호국의 달이라며 한 차례 호국에 관한 운편을 곁들여 시낭송을 하시는 목청이 찌릿찌릿 울렸다.

이어서 '운천에서 온 3기 문예대학 수강생 김미경' '처음 써 본 시를 급히 제출하느라 수정을 못해 나중에 고친대로 낭송을 할 테니 참고해서 들어 달라. 제 고향 운천에는 옛

날부터 산정호수를 시작으로 운천 시내 외곽을 따라 흐르는 부소천이라는 개울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감상을 시로 표현해 봤다는 설명과 함께 시낭송을 했다. 모두들 환호로 반겨 주시니 고마울 따름이다.

능내리 다산 정약용 선생 기념관에 도착하여 점심식사에서 지도감사 안익수 시인의 강연이 이어졌다.

나의 시 '부소천'과 김선진 씨의 '꽃다지꽃' 두 편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내 시가 채택되었다는 뿌듯함마저 들었다.

돌아오는 길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된 마음으로 터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 문학기행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문학과 거리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포천문인 발굴 창구 역할크기대

제 3기 포천문예대학 수료식 성료



지난 15일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하고 포천시와 (사)포천문인협회가 후원하여 주최한 제 3기 포천문예대학 4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30시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기모(영북면) 등 17명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했다.

지난 15일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권 오)이 주관하고 포천시와 (사)포천문인협회가 후원하여 주최한 제3기 포천문예대학 4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30시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기모(영북면) 씨 등 17명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포천문인협회 이재욱 회장은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 수강받은 수료생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과 문예대학을 통하여 포천문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의 유치에 노력하여 수료생이 꼭 찾으려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수료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수강생 정기모씨는 "십 몇년 동안 글을 써왔지만 문예대학에서 교수님께 수강을 들으며 또다른 글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무겁게 보이던 시의 창작에 첫발을 내딛게 된 점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료생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김선진, 김미경 씨에게 (사)포천문인협회 이재욱 회장의 표창장 수여되었으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기모 ▶김석환 ▶이재욱 ▶이인용 ▶이회진 ▶이은주 ▶서상범 ▶김선진 ▶김미경 ▶김창호 ▶김기호 ▶이원용 ▶이명순 ▶이민규 ▶김영복 ▶도길남 ▶정광희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한편, 이날 수료생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김선진, 김미경 씨에게 (사)포천문인협회 이재욱 회장의 표창장 수여되었으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기모 ▶김석환 ▶이재욱 ▶이인용 ▶이회진 ▶이은주 ▶서상범 ▶김선진 ▶김미경 ▶김창호 ▶김기호 ▶이원용 ▶이명순 ▶이민규 ▶김영복 ▶도길남 ▶정광희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韓國의 선비정신 · 33

청렴결백한 맹사성(孟思誠)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맹사성은 세종때 좌의정을 지냈다. 평생 재산을 모으지 않았고,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맹사성이 평상복 차림으로 남쪽을 여행하다가 길에서 소나기를 만나 잠시 누각에 올라가 비를 피한 적이 있었다.

그때 선비 황의현이 먼저 누각에 올라 두 손을 댕잡히고 바야흐로 현관에 써있는 시를 보며 얼마간 읊조렸다. 그런 다음 오만한 태도로 맹사성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영감은 방금 내가 읽은 시의 흥취를 알겠소?"

구석에 앉아 있던 맹사성이 일어나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시골뜨기가 어찌 시를 가리키며 물었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황의현은 더욱 오만한 자세로 대답했다.

"이것은 바로 선현들이 눈으로 보고 흥에 겨워 우리 강산의 뛰어난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아마도 문자 가운데 살아있는 그림이 아닌가 하오"

"그렇군요. 참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 같은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시에 대해 물어 볼 수 있었습니까?"

조금 지나서 뒤쳐진 채 따라오던 맹 사성의 하인들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누각에 도착하였다. 황의현이 그제야 이상하게 여기고 하인에게 물었다.

"도대체 저 영감이 누구요?"

하인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대답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바로 맹사성 대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황의현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엎드려 사죄하였다. 그러자 맹사성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그 뜻이 중요한 것이오. 그대한테는 사람을 오만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었소. 조금 전에는 그렇게 도도하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왜 이리 비굴하단 말이요?"

맹사성은 부모님을 뵈러 온양을 자주 갔다. 그가 온양에 갈 때는 각 고을에 알리지 않고 관가에도 들리지 않았으며, 간혹 간소한 차림으로 소를 타고 움직였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양성(陽城)과 진위(振威) 두 고을의 수령이 맹대감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호원에서 기다렸다. 수령들이 음식상을 차려놓고 기다린지 한참이 지나서야 소를 탄 늙은이 하나가 두 수령 앞을 지나갔다. 두 수령은 아전을 시켜 그를 꾸짖게 하였다.

"장차 정승의 행차가 당도할 터인데 웬 시골 늙은이가 얼정 거리는가?"

아전이 꾸짖자 맹사성은 가만히 어깨를 추스르며 대답했다.

"나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온양에 사는 맹고불(孟古佛)이라고 말씀 올리거라."

고불은 곧 맹사성의 호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전은 곧 수령 앞으로 달려와 보고했다.

"저 노인네가 하는 말이 자가 맹고불이라고 말씀드리랍니다."

곳으로 빗물이 새는 바람에 옷이 다 젖고 말았다. 병조판서가 맹사성의 집을 나서며 탄식하였다.

"정승의 집이 이러한데 내 어찌 바깥 행랑재가 필요하리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행랑채를 허물어 버렸다.

맹사성이 우의정(趙大鎰)을 기록하였는데 맹사성은 감관사(監館事)로 그 내용을 감수하였다. '태종실록'의 편찬이 끝나자 세종이 맹사성을 불러 말했다.

"아버님의 실록이 완성되었는데, 과인이 한번 봤으면 좋겠소."

그러자 맹사성이 세종의 요구를 거절하며 말했다.

"사서(史書)란 옛 임금의 행적과 치적을 가감(加減)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는 임금의 과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만일 임금께서 그 과오를 보게 되면 반드시 억울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임금이 사관들이 기록한 실록을 보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여 기록을 고치게 되면 반드시 훗날의 임금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이 실록을 보고 기록을 보고 고치게 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께서는 실록을 보실 수 없습니다."

맹사성의 말을 듣고 난 세종은 말없이 수승 하였다.

▶맹사성(孟思誠)
1360년(공민왕9)~1438년(세종20)

본관은 신창(新昌)이며 자는 자명(自明), 호는 고불(古佛)이다. 1386년(우왕 12) 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 우헌납(右獻納), 수인관(守仁館), 내사사인(內史舍人) 등을 지냈다.

조선이 건국되어 예조의랑(禮曹議郞)이 된 이래 정종과 태종 때에 요직을 두루 거쳤다. 1408년 대사헌이 되었을 때 지평(持平) 박안신(朴安信)과 함께 평양군(平壤君)조대립(趙大臨) 태종의 딸 경정공주의 남편을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잡아가다 고문을 하는 바람에 태종의 노여움을 사 처형될 뻔하였으나 영의정 성석린(成石璣)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그후 예조판서, 호조판서, 공조판서를 거쳐 1419년(세종1) 이조판서가 되었다. 1432년 좌의정에 올랐으나 1435년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비록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공복(公服)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가 맞이하여 뒷자리에 앉혔으며 돌아갈 때도 역시 공손하게 배웅하여 손님이 말을 탄 뒤에서 들어왔다. 효성이 지극하고 청백하여 출입할 때는 소타기를 좋아하였으므로 보는 이들이 그가 재상인 줄 알지 못하였다.

영의정 성석린은 그의 집 가까이 살았는데, 자신이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항상 말에서 내려 걸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녹사에 뽑혔다. 후인들은 이를 일러 '공당문당'이라 하였다.

맹사성은 성품이 청결하여 항상 나라에서 주는 녹미(綠米)만 먹고 살았다. 하루는 부인이 밥상을 차려놓는데 햅쌀이었다. 오랜만에 햅쌀을 접한 맹사성이 부인에게 물었다.

"햅쌀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오?"

"집안에 있는 쌀이 하도 오래 묵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기에 이웃집에서 조금 빌어왔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나라에서 녹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그 녹을 먹어야 하는데 어찌 남에게 빌어온단 말이오?"

정승이 된 뒤로 그는 항상 문을 닫아걸고 손님을 만나지 않았으니 이는 청탁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번은 병조판서가 상의할 일이 있어 맹사성의 집을 찾았는데 집이 무척 비좁았다. 마침 소나기가 내리자 틀어진 지붕 곳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67)

양운하(楊雲夏) 교장선생님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우리 백성은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인 교육에 힘쓰며 개화하여 문명을 깨우치는 일이다."

"태극기를 게양하라. 그리고 바라보라. 우리 태극기는 바람에 펄펄 날릴 때도 있고 고요히 멈출 때도 있다. 나라의 운명도 이와 같은 것이니 우리는 늘 나라 사람의 길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태극기가 펄펄 힘차게 펄럭이도록..."

인천상업중학교(6년제 중학교 과정)를 졸업하고 일제 치하에서 훈도, 교무 교장이 되었던 포천 출신의 최초의 현대 교장이셨으

며 초대 교육회장이셨다.

일제 치하에서는 교육을 통해 깨우침으로 개화를 부르짖고 실력배양만이 나라구하는 길이라 가르치셨으며 조국이 해방되자 포천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시어 '태극기 사랑', '애국의 길', '독립의 길'을 가르치셨다.

특히, 포천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송우초등, 포천초등, 공평, 삼정, 내촌, 금주초등 교장을 역임하시는 동안 교내 식물을 장려하시고 품위와 가치를 자랑할만한 향나무를 심어 정원을 꾸미고 학생들이 즐겁게 하였고, 특이, 한문학과 서예에는 남다른

조예가 깊으셨으며 서예가의 일가를 이룬만큼 훌륭하셨으나 유품이 남아있지 않아 애석하기 두지 않았다.

온후한 인품과 덕성은 선비정신의 발로였으며 청렴하고 늘 기쁨이 넘치셨다.

또한 약주를 즐기셨다.

"내 큰 목욕탕 안에다 막걸리를 가득 담아 놓고 맨몸으로 탕 안에 들어가 싶었 마셔 보리라."

늘 애주가이자 주선(酒仙)의 길을 사셨으며 '학도가', '정춘가', '포천보통학교 교가'를 취중에 부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1920 ~ 1960년 40년간 오직 교

육자의 길을 굳게 걸으셨으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다.

50년대 초대 포천교육감(민선) 선거에서 2차 투표 끝에 1표차로 제자 권모씨에게 고배를 마시고 낙선하는 불운을 겪으셨으나 곧은 절조를 잃지 않으셨다. 불행히도 사모님께서 1점 혈육도 아니 남기시고 타계하시자 양자를 취하셨으며 여의치 않자 재혼, 아들을 하나 득남하셨는데 청빈한 생활 끝에 중학교 입학금을 마련치 못하게 되자 비판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 세상으로 가셨다.

남의 자식들은 곧고 바르게 잘 가르쳐 훌륭한 인물들을 키웠으나 자신의 자제는 청빈하여 가르치지 못한 한을 안고 가셨다.

그 뒤늦게 별세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묘소를 찾아 풍곡하였다고 전한다.

신복면 계류리에서 출생하시어 고향 계류리에 묘소가 있다. 청주 양씨 문중의 큰 교육자였으며 내 고향 포천의 청빈한 교육자였던 양운하 교장선생님이였다.

追慕 勉菴 崔益鉉 先生

(추모 면암 최익현 선생)

抱川名地勉菴生(포천명지면암생) 포천 명지에 면암선생 내사사

護國丹心惟共懼(호국단심성공요) 호국단심은 별과 함께 빛나고

斥邪衛正千秋鑑(척사위정천추감) 척사위정은 천추토록 거울되고

斷食敵邦終殉節(단식적방종殉節) 적국의 밥을 끊고 마침내 순절하시니

追慕儒林大會成(추모유림대회성) 추모하는 선비들이 큰모임 이루었네

抗倭同志日同明(항왜동지일동명) 항의투지는 해와 같이 밝아라

守義剛忠萬歲聲(수의를강충만세성) 수의의충하니 만세소리 들리네

遺風承襲永長亨(유풍승襲永長亨) 유풍을 승습하오니 길이 길이 흥통하소서

김호철
경북 영주시

※ 포천 한시백일장에서 차상을 수상한 작품.